



주 제:	“새로운 가르침”	“연중 제 4 주일”	2009년 2월 1일
복음 묵상:	[마르 1,21-28]	[신명 18,15-20]	[1 코린 7,32-35]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 줄 수 없다. 오로지 하느님이 말씀만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다. 권위 있는 새로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나는 법이다. 아무리 단단하게 얼어붙은 물도 따뜻한 햇빛이 들어가면 녹기 시작하는 법이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에서 더러운 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오늘 복음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 주신다. 그 더러운 영이란 예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생각들이나 사교들일 수도 있다.

오늘 복음은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그 가르침을 듣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깨닫고 그 소문이 곧바로 온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널리 퍼져 나가야 한다. 내 안에서 널리 퍼져 나가야 하고 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져 나가야 한다. 마르코 복음은 앞으로 이 새로운 가르침이 점차로 퍼져 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가를 전해 줄 것이다. 마치 마른 사막에 물이 흘러 들어가서 생기를 되찾아 주듯이 새로운 가르침이 내 마음 안에 놀라운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질 때 하느님의 나라는 그만큼 많이 건설될 것이다. (유 광수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알토의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의 패유를 빌면서** 알토파르트에서 매일 시간을 정하여 각자 묵주기도를 같은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30 분/ 오후 1시 / 오후 9시 30 분.
- **최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1/25, 2/1 두주일간 못나오십니다.
-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 2 개월여정으로 한국에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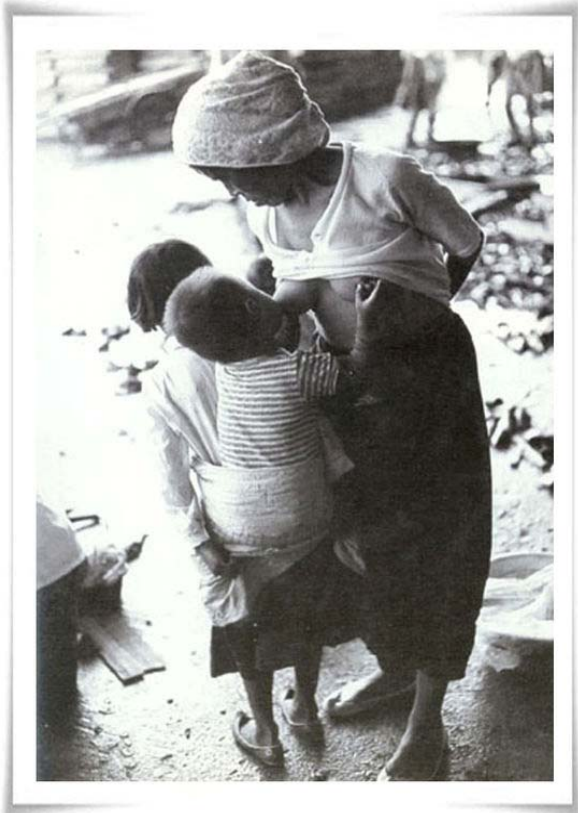
공지사항:

1. 다음주일부터 **미사후 연습**이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각 파트별로 주중 연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알토 파트: 2/9(월) 오전 11시 최 효원 도미니카 자매님택
남성부 (테너, 베이스): 격주 금요일 저녁 9시 (최 단장님택 2/6 일 첫 모임)
소프라노: 추후 결정
3. **성가 연습 자료실 안내**
 - 성가대에서 연습하는 거이 모든 곡을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음원을 본당 성가대 웹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5240>
 - **화답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080>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래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마르 1,21 ~-28)

1분 명상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휴대용 젖병, 보온 젖병, 작난감 젖병

나의 불행은 볼 줄 알면서
나의 허물은 볼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슬픔과 고독은
뼈저리게 느끼면서
남의 고독이나 슬픔을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비참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불행을 알 듯이
남의 불행도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의 눈물의 뜻을 알 듯이
남의 괴로움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나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이고 싶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 조금이라도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오늘의 말씀 사탕: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시 127,1)